

2022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
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—
성경의 핵심

메시지 8

생각을 영에 둬

성경: 롬 8:4-7, 12:2, 엡 4:18, 23, 요일 5:11-13, 빌 4:7

I. 우리는 생각이 전쟁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— 마 16:23, 엡 6:12, 16-17.

- A. 사탄과 하나님이 모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터가 되었다 — 고후 10:4-5, 11:3.
- B. 두 왕국—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—의 전쟁터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다 — 마 12:26, 28.
 - 1. 독립적인 생각은 패배당할 것이지만 영을 의지하는 생각은 승리할 것이다 — 롬 7:23, 25, 8:5.
 - 2. 우리가 사탄과 하나 되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가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다 — 롬 8:6.
 - 3.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기를 배워야 한다.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— 마 3:2.
 - 4. 원수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이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,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덮는 길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— 엡 6:12, 16-17, 계 2:5, 16, 3:3, 19.

II.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중요한 항목은 생각이다.

- A. 생각은 사람의 개성, 즉 사람의 인격인 혼의 주도적인 부분이다. 그러므로 생각은 그 사람 자신인 혼을 대표한다 — 롬 12:2, 15:5, 고전 1:10, 2:16, 빌 2:5, 4:2.
- B. 로마서 8장에서 생각은 중립적인 것으로서, 거듭나고 연합된 영과 타락한 몸인 육체 사이에 있다.
- C.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보여 주는 것은 생각이 두 가지 다른 작용을 하여 우리를 영 안에 있게 하거나 육체 안에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 - 1.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거듭난 영을 의지하고 이 거듭난 영과 연결된다면, 우리는 영 안으로 인도되어 생명의 영의 법인 신성한 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— 롬 8:2, 6.
 - 2. 생각이 육체에 연결되어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면, 우리는 육체 안에 있게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— 롬 8:6-8.

III.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 — 롬 8:4-5.

- A. 그 영의 일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이며, 그 영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일들이다 — 롬 8:5, 요 16:14-15.
- B.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기를 훈련할 때 결국 우리의 온 존재가 영을 따를 것이다 — 롬 8:4.
- C. “영에 둔 생각”은 직역하면 영의 생각이다.
- D. 영에 둔 생각은 5절에서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.

IV.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열쇠이다 — 롬 8:6.

- A.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다 — 롬 8:6 상.
 - 1. 우리는 죽음에 속한 느낌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안다. 우리는 평안이나 생생함이 아닌 불편함과 죽어 있음을 느낀다.
 - 2. 염려, 불만, 공허함, 낡음, 메마름, 어두움, 불일치, 불안, 속박 같은 내적인 느낌들은 죽음의 느낌의 방면들이다 — 마 6:31-32.
 - 3. 죽음의 느낌을 통해 우리는 육체에서 구출받고 영 안에서 살도록 경고 받게 될 것이다 — 롬 8:4.
- B. 영에 둔 생각은 생명이다 — 롬 8:6 하.

1.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— 요 1:4, 10:10, 11:25.
 2.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흘러나움이다.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흘러나움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시는 것이다 — 엡 4:18, 계 22:1.
 3. 하나님의 생명은 신성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고, 영원하여 창조되지 않고 시작과 끝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 — 요 3:15, 요일 2:25, 5:13, 20.
 4.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파괴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썩지 않으며,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하고 죽음을 정복했으며, 또 죽음을 삼킬 부활 생명이다 — 히 7:16, 행 2:24, 계 1:18.
 5.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며,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— 요일 5:11-12, 1:2.
 6. 생명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,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— 롬 8:6, 10-11.
- C. 영에 둔 생각은 평안이다 — 롬 8:6 하.
1.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속사람과 일치되고,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 조금도 없게 되며 속에서 평안함을 느낀다 — 롬 1:7, 5:1, 14:17.
 2. 신약은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— 빌 4:7, 롬 16:20.
 - a. 하나님의 평안은 사실상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통해 우리 안으로 주입되신 평안이신 하나님이다 — 요 16:33.
 - b. 우리의 아버지는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화평의 본성을 지닌 화평이 넘치는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다 — 롬 15:33, 마 5:9, 히 12:14, 약 3:18, 살후 3:16 상.
 3.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신다 — 빌 4:7.
 4.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.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아야 한다 — 골 3:15, 히 7:2.
- D. 우리의 생각을 영에 더 둘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 새롭게 된다 — 롬 12:2, 엡 4:23.
1.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되실 때 이 연합된 영은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된다. 이 연합된 영에 의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새롭게 된다 — 엡 4:23, 롬 12:2.
 2.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생각을 영에 둔 결과이며 우리 혼이 변화되기 위한 기초이다.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이다 — 롬 8:6, 12:2, 고후 3:18.
 3. 우리 생각은 혼을 주도하는 부분인데, 생각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의지와 감정도 따라서 자동적으로 새로워진다.
 4.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존재 안에 새로운 요소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. 이것은 내적이고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산출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적절하게 만든다 — 롬 12:2, 4-5.